

< 2013년 10월 11일 금요일 참고 기도문 >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자 주님의 마음을 뇌에 전달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 소리를 듣고 받아 느끼는 즉시 그와 동일한 마음, 정신, 생각으로 변화되어 행하면 안 되는 것도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성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깊은 사랑과 뜨거운 열정으로 행하여 삼위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 영원한 것을 남기는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정을 받은 자는 사탄이 절대 틈타지 못 하고, 우리의 마음이 신의 마음이 되어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성자 주님의 심정, 분체의 심정을 받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성자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부터 준비하며 깨닫고자 하여 마치 바람이 살결을 스쳐 지나가듯이 은밀히 깨닫는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욱 더 간구하여 뚜렷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충격받게 하시며, 1차 뇌를 통해 성자의 마음을 받고, 거기서 더 절실히 기도드리므로 2차 깊은 차원으로 도달하여 마음도 정신도 행위도 절대 성자와 분체 중심으로 굳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첨단 예술인 말씀으로 깊은 심정을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온전한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선생님을 통해 우리를 귀히 보고 이끌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첨단의 구상이고, 영감이며, 심정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수록 성자와 선생님을 붙잡고 더 간구하게 하시며, 육이 아니라 영과 혼이 알고 잡는 심정의 그 힘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뜻과 선생님의 뜻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심정을 받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육이 아닌 혼으로 깨닫는 차원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으로 영으로 깨달아 성자의 몸이신 선생님의 크신 가치와 귀함을 알아 큰 것을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심정은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며 오묘하다 하셨습니다. 신비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전능자 성자의 마음이기예 그러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신의 육이 되신 선생님의 마음이라 오묘하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깊은 심정을 맞추기 위해 먼저 선생님의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라 하셨는데, 저희가 매일 매일 위대한 성약 역사를 살아가면서 성자와 선생님을 사모하며 그를 위해 산다 하면서 쉽게 죄를 짓고, 주님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등을 돌렸던 것들을 진정으로 회개하며, 선생님께서 영으로 늘 옆에 함께 해 주시는데도 의식하지 못하고 생각조차 못했던 모든 삶을 다시 한 번 깊이 회개드립니다.

한 번 구하고 끝내면 지능이 낮아 또 잊어버리니 선생님의 그 깊은 심정 받기를 계속해서 구하고 또 구하게 하여주시옵소서. 어떤 특별한 날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마음을 잘 맞추어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은 모든 삶이 그 때마다 하나의 앓은 자세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순간 그 때는 편한데, 계속 오랫동안 편치 않은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서 있지도 말고 앓아있지도 말고 병행하면서 계속 발전되고, 변화되고, 차원을 높이고 행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뇌를 온전히 하게 하시며, 그 온전한 뇌를 가지고 생각을 잡아 주와 같이 끝까지 몸으로 행하여 귀한 생명의 휴거 역사를 꼭 이루어 가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천년의 귀한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사랑하는 선생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분의 모든 영적인 프로그램 가운데 리듬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더 차원높은 천국의 단계로 올라가 성자 주님을 모시고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분과 한 마음, 한 몸이 되어 심정깊게 행하시는 두 증인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힘을 주시며, 오직 휴거 역사를 위해 사랑으로 몸부림치는 섭리사의 모든 형제들에게도 충만한 사랑의 성령으로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님, 선생님. 진정 감사드립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돌리오며,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성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